

지역 매 아 리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 개최

부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 사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2019년 제1차 새만금지원협의회(위원장 이영택)가 21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2019년도 사업계획, 2023년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황 등에 대해 부안군 재연길 새만금잼버리과장이 설명했으며 이어 참석위원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등 새만금 현안사업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으며 제7회 부안 마실축제 및 2023년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안군 인구늘리기 추진방안을 토론했다.

이영택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지난 7월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을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에서 제시해주는 의견이 부안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더불어 새만금의 밝은 내일, 부안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지원협의회는 새만금 관련 사업 추진상황 및 새만금사업 당면현안 논의와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등을 위해 현장 방문 및 토론회를 개최해 새만금을 일러는데 노력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21일 군의회 의정실에서 최인규 의원(대표 위원)과 홍순민, 오영택, 김현기, 이병성 등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3월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고창군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감사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오는 6월에 열리게 될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규철 의장은 위촉식에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도 낭비없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위원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최인규 대표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닌 재정운영의 적법성, 예산의 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효율적인 예산편성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세종정부청사 방문 공항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등 10건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1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공항마리나시설 조성사업 등 10건의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공항마리나시설 조성사업과 보안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10건을 건의하고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보안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과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계화간척농촌다목적복합사업 등 3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격포항 확장 개발과 위도 치도마을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공항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권익현 부안군수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1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했다.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자연과 사람이 건강한 귀농귀촌 1번지 고창

고창군,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7년 연속 수상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이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은 21일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9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TV조선·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글로벌 브랜드 경쟁시대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184세대(2476명)가 귀농 귀촌했고, 2007년 이후 모두 1만144세대 1만5859명이 정착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인구유입 효과도 톡톡히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준공돼 예비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지원되고, 올해도 예비 귀농·귀촌인이 입주해 창업교육과 기초농업교육을 통해 농촌에서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유이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지역 전체에 분포해 있는 고인돌과 고분군을 보듯 수천 년 전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명성을 떨쳐 왔다"며 "최근에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소득사업과 다양한 인문교육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이 21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AC 공장을 방문했다.

"지역기업이 살아야 정읍이 산다"

유진섭 시장, 기업체 방문 소통행정 '강화'

정읍시가 지역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 수렴 활동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시는 "국내·외적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업체 현장방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둘러보고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의 애로 등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유진섭 시장은 21일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주)3AC(이하 쓰리에이시) 정읍 공장을 찾았다. 유 시장은 기업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 채성호 대표이사

의 안내로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오찬을 함께 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쓰리에이시 관계자들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인력 수급을 적극 지원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지역 내 인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쓰리에이시가 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업체 현장방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2020년까지 활성탄 고부가 가치와 연구와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신소재·재료 분야로 사업을 확대·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의 어려움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국가 암관리 우수기관' 표창

정읍시보건소가 21일 전북도와 전북지역 암관리 주관인 2018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시·군별로 암예방 교육과 캠페인 활동, 검진 수검률(국가암,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우수사례 등 3개 분야 5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보건소는 그간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검진 안내문 우편발송과 1:1 전화 안내,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의 홍보활동을 해왔다. 또 전북지역암센터와 합동해 지역행사와 연계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

화했다. 특히 실적이 저조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아파트, 경로당 등에 대변통을 배치했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많고 의료기관이 먼 읍·면 지역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기적인 차량 출장을 실시해 검진 수검률을 높였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은 철저한 계획 아래 더욱 보완하겠다"며 "합에 대한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ch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